



영평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영평팔경가를 열심히 익히고 있다.



영평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영평팔경가를 연습하고 있다.

영평팔경가 영평 · 영중초 학생들이 맹연습중

11월 영평팔경가 공연 앞두고 40여명 한마음

경기도소방본부 포천시지부(부장 박영실)가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는 영평팔경가 공연이 올해는 11월 초에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영평팔경가의 발원지인 영평천 지역에 있는 영평초등학교(교장 이호연)와 영중초등학교(교장 유영기) 학생들이 공연에 참가하기로 하고 영평팔경가를 열심히 익히고 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 오후

영평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0여 명이 열심히 가사를 외우고 리듬을 익히고 있다.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화음을 맞춰 부르는 영평팔경가에 벌써부터 감동 받고 있다.

영평초등학교에서는 4,5,6학년 20여명의 학생들이 영평팔경가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가사와 리듬을 익히고 있다.

두 학교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박영실 지부장은 "영평초

등학교 학생 20여명은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잘 따라 해주고 있어 공연 전까지는 완벽하게 연습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영평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성숙하게 진도가 빨리 나가서 나중에 함께 연습할 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은 "이 지역 전통 민요에 따라 부르는 영평팔경가를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배워서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기 영평초등학교 교장은 "우리교장의 대표적인 영평팔경가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익힐 수 있어서 반갑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06

나랏일에는 원수가 따로 없다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시회장

신임사화가 일어났을 때 박문수는 조태재와 반대편에서 서서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당파가 심해지자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양쪽을 화해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원한을 지우지 않았다.

조태재에게는 조관빈(趙觀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조관빈을 미워하는 자가 모함하여 장차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자 박문수는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조관빈이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목을 베어야만 하지만, 이번 일은 모함에 의한 것이니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이에 영조가 말하였다. "그저는 그대 원수의 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나랏일을 논하는 데 어찌 원수가 따로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굳이 관빈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청컨대 신의 원수를 닮은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린 다음 죽이소서."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조관빈을 용서했다. 조관빈은 벼슬이 관서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 박문수는 그 집을 찾아가 조관빈의 아들에게 말했다.

"그대 아버지와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일찍이 동료로서 옛정이 있으니 어찌 문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 아들이 문상을 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끝내 박문수를 외면하였다. 박문수가 문상을 하며 슬피 울고 난 후 사람을 시켜 고인의 관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 관을 도끼로 부수도록 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 아들에게 알리니 아들은 태연히 답하였다.

"그냥 두거라. 그와는 비록 원수지간이지만 일찍이 동료로서 옛정이 있으니 어찌 문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 아들이 문상을 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끝내 박문수를 외면하였다. 박문수가 문상을 하며 슬피 울고 난 후 사람을 시켜 고인의 관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 관을 도끼로 부수도록 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 아들에게 알리니 아들은 태연히 답하였다.

"그냥 두거라. 그와는 비록 원수지간이지만 일찍이 동료로서 옛정이 있으니 어찌 문상을 하지 않겠는가?"

수시간이지만 아버지를 욕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윽고 박문수가 관을 쪼개고 위쪽의 나무를 자르자 그 속에 한 치가 넘는 낫 끝이 박혀 있었다. 나무를 벨 때 낫의 끝부분이 부러져 관 속에 박혀 있던 것이었다. 이에 박문수는 목수를 불러 꾸짖었다.

"대신의 관에 낫이 박혀 있으니 무덤속에서 어찌 후환이 없겠느냐?"

그러고는 새로 관을 짜서 장사를 지내게 했다. 이로부터 두 집안이 서로 만나지는 않아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박문수(朴文秀) : 1691년(숙종 17)~1756년(영조 32).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耜隱)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로 뽑혔다.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박문수가 문상을 하며 슬피 울고 난 후 사람을 시켜 고인의 관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 관을 도끼로 부수도록 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 아들에게 알리니 아들은 태연히 답하였다.

등을 지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로서 책임을 지고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 우참찬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가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할 때 4색(四色)의 인재를 모두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그가 압행어사로 활약하던 시기의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신임사화와 정미환국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張禧嬪)이 경종을 낳은 후 사약을 받을 때 노론과 소론은 장희빈의 처벌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노론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모해하였으므로 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소론은 세자를 위해 장희빈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연인군(戀人)의 영조를 세제(世祖)로 책봉하려 하였는데, 소론은 이들을 불충(不忠)으로 몰아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런 와중에 남인(南人)이 경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었다는 목호룡(鹿虎龍)의 고변을 계기로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爾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재(趙泰宰)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대다수 인물이 화를 입었는데 이를 신임사화(辛壬士禍)라 한다.

영조가 즉위한 후 탕평책을 시행해 당파의 이해 없이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 때 노론의 이의연(李義淵)이 상소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영조는 과감하게 그를 유배시키고, 소론 중에서 당파성이 짙은 김일경(金一鏡), 목호룡(鹿虎龍) 등을 처형하는 한편 이광조(李光佐) 등도 유배시켰다. 이를 계기로 노론이 다시 정권에 복귀하였는데 이를 정미환국(丁未換局)이라 한다.

예/술/칼/럼

상징과 은유

다리(橋)의 의미는 깊고 심상(心象)하다.

인간은 다리를 놓아 이쪽과 저쪽을 왕래하지만 결국은 나누어지는 비극을 내포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역에서 제 밭그릇 행거기에 항상 숨이 차다.

강남과 강북도 한강다리를 두고 구분한다. 보통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할 때 다리를 앞에 두고 손을 흔들며 보내거나 마중을 나갈 때도 다리 앞에서 서서 거러 가다린다. 한편 '물아성'이라는 다리도 있다. 그래서 다리는 이별의 장소이자 때로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인간은 물 위에 놓는 것을 다리라 이르고 길 위에 놓인 것을 육교라 한다. 다리는 물에 닿아 있으며 육교는 땅에 서 있다. 지금까지 다리나 육교가 교통수단으로써의 의미보다는 경계의 목표가 더 강조된 듯 싶다. 물 위의 다리가 인간의 진실한 소통이 되었을 때는 세상은 평화로웠으며, 탕크와 군화들이 지나갈 때나 바리케이트 검문이 삼엄할 때는 민주와 자유가 여지없이

구속당했다. 이처럼 늘 다리는 비틀기와 더불어 평화의 상징이자 전쟁의 은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리가 회생을 표방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과거의 영역에서 제 밭그릇 행거기에 항상 숨이 차다. 치밀한 역학 구조와 문명의 이기(利器)로 표현된 가장 화려한 건축이 다리라면, 사람의 가슴으로 빛은 최고의 건축은 인간이다. 그 때 사람이 곧 희망이라 했다. 사람이 다리를 처음 건널 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리라 막연히 기대한다. 이처럼 사람과 세상을 잇는 것도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는 것도 다리다. 그래서 다리는 시간의 밭잡이, 문화적 자물쇠이다. 다리는 자물쇠 구멍 두 개다. 이쪽에서 채우면 저쪽도 잠기고 저쪽에서 풀면 이쪽도 열린다. 두 개의 열쇠가 다르지만 같은 거다. 다리는 같이 닫히고 함께 열린다.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생명의 혈관과 같다.

육신의 다리도 건너는 다리가 있는가 하면, 상상의 고리로 연결하는 마음의 다리(인간의 다리)가 한층 위대하며 더 절실함을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인간을 위한 어깨가 되며 인간의 다리가 되는가. 누가 제 육신을 작진 짓밟고 사람이 건너가 한 적이 있는가. 거리의 종이집 속에 태우는 촛불의 행렬이 다리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붉은 피에 심지를 박아 언제 한 번 활활 태워 보라. 비로소 무엇이 인간의 다리인가를 안다.

이해와 용서와 양보로 서로로 끌어안고 오로지 아름다운 꿈을 향해 회복한 발걸음을 옮길 때 인간의 진정한 다리가 놓아짐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리의 상징과 은유가 이 땅에 오래 펼쳐질 것이다.

시(詩)의 상징과 은유도 여기

결하는 마음의 다리(인간의 다리)가 한층 위대하며 더 절실함을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인간을 위한 어깨가 되며 인간의 다리가 되는가. 누가 제 육신을 작진 짓밟고 사람이 건너가 한 적이 있는가. 거리의 종이집 속에 태우는 촛불의 행렬이 다리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붉은 피에 심지를 박아 언제 한 번 활활 태워 보라. 비로소 무엇이 인간의 다리인가를 안다.

이해와 용서와 양보로 서로로 끌어안고 오로지 아름다운 꿈을 향해 회복한 발걸음을 옮길 때 인간의 진정한 다리가 놓아짐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리의 상징과 은유가 이 땅에 오래 펼쳐질 것이다.

시(詩)의 상징과 은유도 여기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뮤지컬 이야기

도박과 사랑,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Guys and Dolls, 1950)>

80년대 초반 인기 있었던 팝송 중에 '헬로 미스터 몽키(Hello Mr. Monkey)'라는 노래가 있다. 여성 3인조 그룹 아라베스크(Arabesque)가 불렀던 이 노래는 2001년에 우리나라의 왁스가 리메이크해서 또 한 번 커다란 인기를 모았다. 왁스가 리메이크한 '머니'라는 노래는 원곡의 가사를 버리고 새로운 가사를 붙였는데 그 중에서 '머니 워너도 돈(머니, money)이~'라는 노랫말이 요즘 같은 사회분위기에서는 더욱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부터 경마, 각종 복권 그리고 인터넷 도박 등 우리 사회는 어느덧 도박이 우리의 생활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종합리조트로 성장, 발전하면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발전에 선봉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복권의 경우도 복권판매로 조성된 기금 중 70% 이상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토초에 조성된 기금도 체육진흥기금과 각 경기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순기능은 사회 요소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사붕괴와 가정해체, 더욱이 인명손실이라는 역기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포함한 미성년자들도 마약처럼 작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도 도박으로 인해 인생패를 맞는 사람들이 사회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이 연극이나 영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박에만 빠져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해피엔딩이 드라마만 있을법한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반전과 함께 사랑까지 얻는 스토리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만족으로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일까?

<아가씨와 건달들>은 도박에 빠진 건달들과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평범한 여자들이 주인공인데 이 작품은 뮤지컬 역사상 손꼽히는 명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공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록을 수립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치광이 미워할 수 없는 건달들이 일으키는 유쾌한 내음으로 공연되자마자 전설이 되었다. 쾌락을 즐기는 최고의 도박꾼 '스카이'와 영혼 구제에 인생을 바친 구세군 '사라'와의 사랑이 코믹하고 경쾌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소년 '아들레이드'와 도박꾼인 '나산' 등이 어우러져 밀바다 인생에 대해 따스한 시선을 유지하며 희극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1950년 초연 당시 브로드웨이에서만 3년이 넘게 공연되어 1,201회라는 경이적인 공연기록을 수립했고 1951년에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5개의 토니상을 거머쥐었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자주 공연되어지는 황금 레퍼토리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 자주 공연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밀바다 인생들을 다룬 작품이지만 재미있고 친밀감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즐겁기 때문이다. 음악과 가사

두를 담당한 프랭크 로서(Frank Loesser, 1910~1989)는 이 작품으로 일약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주사위 도박을 운영해 오고 있는 나산은 약혼녀 아들레이드에게 도박생활을 접고 결혼해서 정착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렇지만 도박계의 큰손인 스카이가 나타나자 다시 도박에 빠져들고 스카이를 만족시킬만한 판을 만들기 위해 돈을 마련할 작정으로 스카이를 먼저 내기를 한다. 스카이가 도박적으로 중무장된 구세군 소속의 사를 데리고 쾌락의 도시 허버니에 다녀올 수 없다는데 돈을 건 나산은 스카이가 흔쾌히 승낙하라는 제안을 뿌린다. 스카이는 사랑을 사를 위해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로 그녀의 선교부흥회에 데려갈 건달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술을 탄 음료를 먹여 허버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결국 내기에는 이겼지만 스카이는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도박판을 벌여 도박꾼들을 이긴 뒤 그들을 데리고 선교부흥회에 참석한다. 스카이는 사랑과 결혼을 하고 나산은 도박을 포기하고 아들레이드와 함께 합동결혼식을 올린다.

<아가씨와 건달들>은 가사가 중요한 뮤지컬이다. 인물들의 개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뮤지컬 코미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많은 뮤지컬의 명작들이 그렇듯이 <아가씨와 건달들>도 그랬다. 대부분이 세련되어 있고 재치가 있으며 매력적이다. 가사가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분위기를 형성한다. 일례로 오프닝 넘버에서 경마에 이

는 방법을 노래하고 주사위도박을 하면서도 여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라든지 좌절감에 생긴 비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나산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을 하는 장면 등은 작품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노래만을 따로 떼어내면 그 맛이 공연을 볼 때보다 조금 떨어지게 된다. 극중 스카이가 건달들이 부르는 "행운의 여신여(Luck Be a Lady)"와 "아들레이드의 탄식(Adelaide's Lament)" 그리고 스카이가 사랑가 부르는 "전에 사랑에 빠졌던 적이 없어요(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등은 지금도 애창되고 있는 곡이다.

1950년대는 브로드웨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성도 높은 뮤지컬 플레이가 양산되었던 시대였다. 그 첫 시작을 화려하게 열어준 <아가씨와 건달들>은 대중들의 도박과 사랑에 대한 호기심과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유쾌한 뮤지컬이라 할 수 있다. 1955년에 영화버전이 개봉되었는데 마론 브란도(Marlon Brando)와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그리고 진 시몬스(Jean Simmons)와 비비안 브레인(Vivian Elaine) 등의 호화캐스팅으로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DVD로 출시되어 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0)

천문학자(天文學者) '김석문(金錫文)'

김석문님은 40세에 이르러 위로는 태극(太極)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물(事物)에 이르기까지 체(體)와 용(用)의 이치(理致)를 풀이한 역학 도해(易學圖解)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도해(圖解)가 44종이고 해서는 127,200여 낱말로 풀이하였다. 특히, 역학 도해를 통해서(易)의 이론에서 지구의 자전(地球之自轉)을 연역해 봄으로써 동양 최초의 지구 회전설(東洋最初之地球回轉說)을 정립

하였다. 이러한 선구자적 이론은 뒤에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등 실학자들의 천문관(天文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남은 속중조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여러 군읍에서 벼슬을 하였다.

영조 2년(1726) 통천군수를 지냈다. 말년에는 내 고향 포천이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 가산면 대곡에서 살았다. 대곡에다 연못을 파고 연못

을 심고 물고기를 기르면서 살았다 한다.

김석문님의 연꽃이 핀 연못에는 일곡이란 풍치(風致)가 농후한 생활을 하였다 한다. 김석문님의 자(字)는 병여(炳如) 호는 대곡(大谷)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었다.

대곡 마을에서 살았기에 호를 대곡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조선시대 역학자였던 남은 효종 9년(1658년)에 태어나 영조 11

년(1735년)에 타계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죽을 날짜를 살아생전에 예언을 하였는데 죽는 날이 예언한 날과 일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화담(花潭)이 고향 송도에서 화담(花潭)을 드러다 보며 생사(生死)를 연구한 것과 내 고향 포천의 김석문님의 역학연구와 일맥상통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서양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생일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생일날 죽었는데 믿음만한 이야기가 못된다.

대곡(大谷) 김석문(金錫文)님이 야말담 스스로 연구한 역학(易學)의 최고봉에 이른 대가(大家)답게 예언한 날짜에 저 세상으로 타계한 위대한 철학이자 학자였다.

초대 漢詩

民能和合國力伸(민능화합국력신)



香隱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民能和合國威伸(민능화합국위성) 經濟興隆發展成(경제흥룡발전성) 민인이 능히 화합하니 국위가 생기나니, 경제가 흥흥하여 발전 하리리다.

山勢欲高巖作壁(산세욕고암작벽) 地形控利水如城(지형공리수여성) 산세가 높아서 비위가 석벽을 이루었고, 지형이 이로우니 물이 성 같이 둘렀도다.

勸農務買平安堵(권농무고평안도) 薄稅輕搖共樂聲(박세경요공락성) 농업을 부지런히하고 징사를 힘써하여 평안하게 잘살고, 박세 경요하니 공락하는 소리리다.

撤廢濶溝全統一(철폐홍구전통일) 事垂青史永傳名(사수청사영전명) 홍구를 철폐하고 통일을 완전히 하여서, 일을 청사에 드리고 영구히 이름을 전하리리다.